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음 5월 6일) 제18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지난달 29일부터 16일간 '2017 올 봄 여행주간'

전북 찾은 여행객 300여만명

지난해보다 50만여명 증가
도내 우수축제 관광지
연계 이벤트가 주요인

전북여행객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296만명이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전년 대비 봄 여행객 50만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봄 여행주간 동안 도내 14시군 주요관광지 90곳에 대해 입장관람매, 무인계측기 등 통계측정방법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총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봄 여행주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7.2% 증가, 주요관광지 주변 통행량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효과는 대표적으로 지역축제 개최지역 인근의 주요관광지와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를 활용,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 박물관 등 주요관광지의 방문객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행사장인 광한투원 20.6%, 임실 치즈테마파크 49%, 전주경주전 40%, 국립전주박물관 45.6%, 부안정자박물관 6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춘향제, 부안오복마실축제,



희뿌연 흙먼지

군산시 회현면 오봉마을 인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현상이 희뿌연 흙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곳 현상은 군산·장항 항로에서 퍼 올린 준설토(뿔) 등을 매립재로 사용해 흙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회현면 오봉마을 인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현상이 희뿌연 흙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곳 현상은 군산·장항 항로에서 퍼 올린 준설토(뿔) 등을 매립재로 사용해 흙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북지역 우수축제 개최 시 인근 주요관광지를 연계한 각종 이벤트 운영이 방문객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남원춘향제와 연계한 관광투원, 춘향테마파크 등 어린이날 무료입장 이벤트, 부안마실축제와 연계한 '부안마실길 오복걷기행사', 한복착용 경기전 무료입장 이벤트인 '전주한옥마을 한복데이' 등이 효과를 봤다.

또한,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관광

지·음식·숙박·체험 등 140여개 업소의 여행경비 할인혜택(10~50%)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여행객이 전북 곳곳에서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근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완주삼례문화예술촌'의 경우, 여행주간동안 입장료 50% 할인 및 특별체험·전시 등 관광상품을 통해 전북 방문객이 46% 증가,

'순창향가터널'은 1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육로가 개설된 고군산군도와 군산근대문화지역을 찾는 관광 수요 증가도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군산시간여행마을의 근대박장 체험·미션 이벤트 및 버스킹 공연,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섬진강 길 걷기여행' 등 여행주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도 가능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공유지 장기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임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확대(제32조)했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3일부터 시행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건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장기임대가 허용되는 업종(근거법령별)은 (개발법) 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재

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 교육원(건축법),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다.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제51조의2, 제52조의2)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 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제12조의3)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社 告

제4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일시: 2017년 6월 10일 (토) 오후 7시부터

장소: 전주 품바문광장

품바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이에 본사는 올해 네번째 품바왕 명인전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북다문화진흥원
- ▲주관: 전북다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취정부 사드 발사대 몰래 반입… 文정부에 안알려”

청와대, “환경영향 평가 회피 의혹도… 안보실 등서 조사할 것”

청와대는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밝힐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어떤 방식이든 사드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분이 정확히 보고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알리지 않은 것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란 의혹이 있다”며 “환경영향 평가가 상당히 기

형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연관성은 없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진상조사 계획을 말했다.

그는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측과 이 경위를 파악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선 내부 경위 파악부터 할 계획이다. 그 이후의 문제를 담당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조사 시기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세간에 떠돌던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